

“신 콘텐츠 발굴... 고객유치 최선 다할 것”

온라인몰 판매·디지털 마케팅 탁월 인스타그램·SNS 통한 백화점 홍보

■ 롯데백화점 광주점 허 미 금 사원

“온라인의 경우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할 수 없는 신 콘텐츠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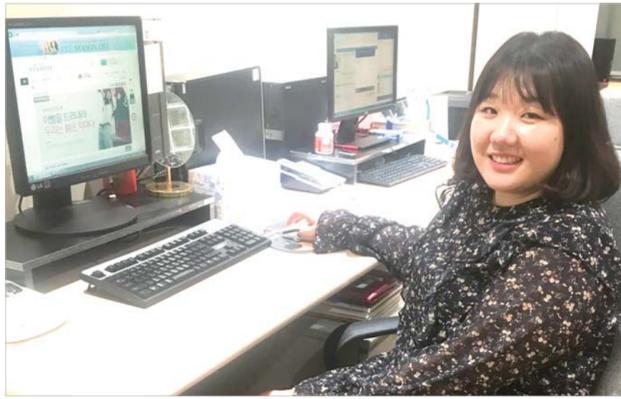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통업계도 온라인 판매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중심에는 허미금 사원(30·여)이 있다.

허 사원은 본사에서 온라인 담당 바이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온라인을 활용한 판매·홍보·마케팅 업무에 탁월하다. 허 사원의 주요 업무는 인터넷 온라인몰을 통한 판매업무와 디지털 마케팅 업무 총 두 가지로 나뉜다.

허 사원은 “온라인 채널에 백화점상

품을 제안하고, 상품기획자(MD)와 영업담당자의 사이를 연계하는 역할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SNS 등을 통한 백화점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밝게 웃었다. 이어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으로 오프라인 입점 한계가 있지만, 온라인의 경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 시키지 못한 주방식 브랜드나, 캐주얼 브랜드 등을 단독으로 입점 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허 사원은 “오프라인의 경우 금·토·일요일이 매출이 크게 오른다면, 온라인의 경우 출근 사기 전시간인 일요일 밤 시간대 판매량이 높다”면서 “그 시간을 공략해 쿠폰을 더 주는 밤도깨비 이벤트를 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소비



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 강화를 위해 타 업체의 시장조사도 놓치지 않고 있다.

허 사원은 “다른 업체의 채널을 보고 저희 광주점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살피고 있다”면서 “온라인 판매의 경우 기획과 가격대 그리고 상품의 노출 빈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쟁사의 시장조사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문자와 우편(DM)의 위주의 홍보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활용한 백화점 알리기에 활약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허 사원은 “우리 채널을 찾는 고객들에게 타 업체보다 더 좋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SNS를 통해서도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전남농기원, 담양 멜론 홍콩 수출 성과

전남농업기술원은 17일 “최근 경북에 위치한 수출 전문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담양 반딧불영농조합법인(김복남 대표)에서 생산한 멜론을 홍콩 시장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2002년에 설립, 조합원 98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담양 반딧불영농조합법인은 대만, 싱가포르 등에 멜론을 일부 수출하고 있고, 국내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도 출하하고 있다.

전남농기원과 담양농기센터에서는 지

난 2017년부터 수출 규격품 생산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수출 현장 종합컨설팅’을 통해 품질 좋은 멜론 생산에 앞장서 왔다.

전남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은 “멜론 홍콩 수출을 통해 국내 수급안정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출 전략작목 발굴과 전문수출단지 집중 육성하고, 현장으로 기술개발과 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전연,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방안 모색

광주전남연구원원은 지난 15일 연구원 상생마루에서 광주전남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 발제를 맡은 박상철 전남대 연구 석좌교수는 “광주전남은 대표적 초고령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주요 정책을 들여다보면 바이오산업 및 항노화 산업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바이오 R&D 활용 및 강력한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강조했다.

김병기 광주전남과총 회장을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신발식 전남대 식품영

양학과 교수는 “광주는 기술분야, 전남은 원재료분야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만큼 이를 통합 후 응용하는 방안이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성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는 “남도의 음식은 노화부문에 강한 메디푸드로 알려져 있다”며 “푸드산업에 항노화 맞춤형으로 발전시킨다면 전남의 지역발전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노화 산업의 선도적 지역인 부산경남의 사례를 소개하며 부산·경남·전남으로 이어지는 ‘항노화 U벨트’의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근산 기자



고 윤여송 교수 유족, 호남대에 또 장학금 40주년 개교 기념식서 2천만원 쾌척

호남대학교 설립 때부터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들에게 잡스승으로 큰 존경을 받아오다 지난 2012년 숙환으로 별세한 고 윤여송 교수의 부인 유순덕씨(64)가 지난 15일 호남대학교에 2,0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의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호남대는 지난 2013년 개교 35주년 기념식 때 캠퍼스에 ‘여송수’를 심어 고 윤여송 교수의 숭고한 뜻을 기려

오고 있다. 윤 교수는 광주일고를 거쳐 전남대학교 국문과에 수석으로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한 뒤 금호고 교사를 거쳐, 1979년부터 호남대 교수로 재직해오면서 교육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제자들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 제자들로 부터 잡스승으로 큰 존경을 받아왔다.

윤 교수는 민속학분야의 권위자로 학술연구를 통해 전통민속 전승보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황애란 기자



광산구 첨단종합복지관 마을플랫폼 ‘놀터’ 개소

광주 광산구가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일부를 개조해 마을플랫폼 ‘놀터’를 만들어 최근 개소식을 가졌다.

첨단복지관은 하루 450명 이상이 찾는 첨단지역 대표 복지시설이다. 광산구는 복지관의 넓은 3층 다목적 프로그램을 ‘책놀터’ 작은도서관, ‘마을 EYES’ 시청각교육실, 주민 공유방, 마을식당 ‘모두의 부엌’ 등이 들어선 주민참여공간으로 바꿨다.

다양한 주민참여가 이날 개소식의 의미를 더했다. 주민대동회에서 마을플랫폼을 제안한 변숙연씨 등 4명의 주민은

큐레이터로 나서 행사 참가자들에게 새 공간을 안내하고, 이용방법도 설명했다.

이밖에도 여러 주민들은 복지관 직원과 작은도서관에서 함께 만든 예코백도 나누고, 마을식당·주민공유방을 이용해 음식 만들기과 일일 카페 운영도 주도하며 자신들이 앞으로 활동할 공간의 탄생을 자축했다.

일일 큐레이터 변숙연씨는 “주민이 제안한 완성된 공간이만큼 주민 스스로 플랫폼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며 “놀터가 다양한 주민 아이디어의 산실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영봉 기자



호남철도차량정비단, 고속차량 품질평가회 개최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은 지난 15일 최상의 고속차량 정비품질 확보로 대국민 안전운행 약속을 이행하고자 2018년 하계대수송 대비 FGI(고속차량 전반정비) 품질평가회를 개최했다.



서부소방서, 어린이집 소방안전교육

광주 서부소방서는 지난 15일 서구 금호동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생과 지도교사 등 40명에게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영광경찰, 합동순찰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는 17일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 부녀순찰대 회원들과 여성악성범죄 근절을 위한 취약시설과 여성안심귀가구역 등을 순찰했다.



영광 흥농초, 전남 119소방동요 경연 ‘대상’

전남소방본부가 주최하고 전남교육청, 한국소방안전협회 광주전남지부, 한국화재보험협회 광주호남지부 후원으로 지난 15일 열린 제13회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영광 흥농초등학교, 광양 엔젤유치원이 대상을 차지했다.



전남소방, 민원만족도 향상 워크숍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청백리의 고장 장소에서 전남지역 소방관서 청렴업무 담당자, 민원업무 팀장 및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8 민원만족도 향상 워크숍’을 실시했다.



광주도시공사, 사회복지시설 ‘사랑나눔’

광주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유광중) 노사는 지난 15일 남구 서동에 위치한 분도 안나 개미꽃동산 사랑의 식당을 찾아 ‘사랑의 쌀’ 50포대를 전달하고 배식봉사를 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